

## I. 지문분석

### 1문단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을 지식 재산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ICT 산업이 창출됨을 보이고 있다.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점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끝내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지문에서 알려줄 수 있음을 알아채자.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ICT 다국적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겠군.’**정도로 생각하고 끝내도 충분하다.

### 2문단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문단을 시작하면서 ‘디지털세’에 대한 언급을 보아 **‘과세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서 읽으면 된다. 또한 디지털세의 정의와 등장 배경에 표시만 하고 넘어가자.

2문단을 읽고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네.’**하고 넘어가면 되며, 뒤의 법인세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아, 그냥 기업의 순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네.’하고 넘어가자.

### 3문단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 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3 문단과 같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실생활 예시가 나오면, 손으로 간단히 정리하면서 읽는 것도 충분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지문을 이해하느라 2~3번 읽는 것 보다 다음의 그림처럼 적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이다.)

#### Z사 회피

A국(특허/낮) ← B국(로열티/높)

그 후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는 점은 2 문단에서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보면 한 번에 이해될 것이다.

3 문단의 끝에 **‘ICT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중요하다면,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라는 부분을 표시하고 넘어가자.(예외 상황에 해당되는 것.)

4문단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시사한다.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썩 읽고 난 뒤 '유인+접근=최소'일 때가 지적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임을 기억하자.

다음으로 국민 소득과 특허 보호 정도에 대한 관계를 손으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마찬가지로 2~3번 읽는 것보다, 그냥 단순화 해서 그려놓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일정 이상 → 비례 관계**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 → 낮은 국가 보다 약함.**

정보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수험생 편의에 따라 '가장 벗어난 국가 < 낮은 국가' 라고 정리해도 괜찮을 듯.)

법 지문의 Tool

법 지문의 경우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빼놓을 수 없다. [갑/을/병], [A/B/C] 등의 서로 간의 관계를 자주 언급하는데, 이 때 학생들은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정말 국어를 잘하는 수험생이 아닌 이상, 한 번에 정리되지 않거나, 이해 불가로 다시 한 번 더 읽거나, 그 이상을 읽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 읽을 때부터, **손으로 단순화 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추천한다. 2~3번 읽으면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 보다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문제

1.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풀이

- ① 1문단에 특허권과 영업 비밀을 지식 재산으로 묶은 것을 보아, '지식 재산'이 공통점임을 알 수 있다.
- ② **영업 비밀의 정의는 제시되어 있으나 그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③ 2문단에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 로열티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지불해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에 유인 비용 + 접근 비용이 최소가 될 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이다.

문제

2.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이

- ①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다고 2문단에 표시하였다. 지식 재산 보호와는 연관이 없다.
- ② 디지털세는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함정 :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이다.**
- ③ 3문단 끝부분에 ICT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중요하다면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임을 알 수 있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디지털세가 아닌 법인세이다.
- ⑤ **2문단에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 이다.

문제

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줄이면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로열티를 이용해 늘리는 것이므로 바꿔 쓸 수 있다.
- ③ 로열티를 통해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늘려야 부과될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④ B국은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해야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리면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이 줄어들게 돼 법인세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 이다.

해설

㉠와 바꿔 쓰기 위해선 Z사가 법인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보여야한다.

해설

파트 1 해설 中

Z사 회피

A국(특허/낮) ← B국(로열티/높)

### Algorithm

#### Step1. 조건 및 정보 확인

㉠과 가설을 통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함 → ㉡엔 자회사들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시하겠군.

**Step2.** 보기에서 제시된 세부 정보 자회사의 이윤과 법인세율간의 관계 제시 → ICT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겠군.

#### Step3. 적용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에 적용해보자.

### 해설

#### ㉠의 해석

ICT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이용해 법인세를 회피한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한 이윤을 낮은 국가에 넘김)

### 문제

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                    ㉡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법인세의 정의를 확인해야겠군.

### 풀이

- 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선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보내므로 적어질 것이다.
- ②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한다.
- ③ 법인세는 제반비용을 제외한 남은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높으면 남은 이윤이 줄어들므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엔 적절하지 않다.
- ④ 발생한 수입을 로열티를 통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보내 법인세를 줄인다.
- ⑤ 법인세율이 본사에 비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이다.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 이다.

문제

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정의를 확인해야겠군.

풀이

- ① 유인 비용을 크게 느낀다면 보호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다.
- ②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손해가 생긴다.
- ③ **접근 비용은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 감소한다.**
- ④ S국은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가장 낮은 국가보다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으므로 보호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 ⑤ 전자의 손해는 유인 비용, 후자의 손해는 접근 비용이다. 보호 수준이 올라가면 유인 비용은 감소하고, 접근 비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이다.

**Algorithm**

**Step1. 조건 및 정보 확인**  
[A]와 S국의 상황을 제시 → S국의 상황에 따라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을 확인해야겠군.

**Step2. 보기에서 제시된 세부 정보**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 →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 보단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높구나.

**Step3. 적용**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에 적용해보자.

**해설**

유인 비용 : 보호수준이 약하면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돼 발생한 손해  
접근 비용 : 보호 수준이 강하면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봐 발생한 손해

**해설**

Part1 4문단 해설 中

- '유인+접근=최소'일 때가 지적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
- (국민 소득)일정 이상 → (보호 수준)비례 관계
-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 → 가장 낮은 국가 보다 보호 수준 약함.